

공소 사목

갈매울 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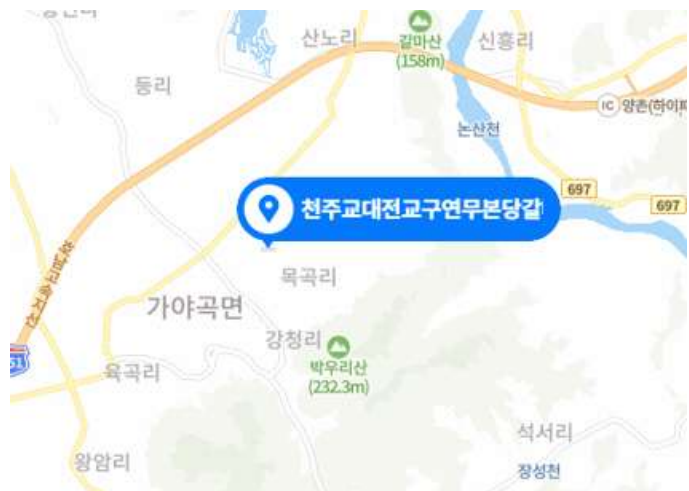
주소 : 논산시 가야곡면 가야목곡1길 15-4

연무 성당 관할 공소

찾아가는 길(논산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412번 버스 -> 강청1리 정류장 하차)

45분	도보21분 환승없음 요금 1,500원 13.0km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900347
	일반 413
	강청1리 정류장

47분	도보20분 환승없음 요금 1,500원 15.1km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900347
	일반 403, 404, 421
	등2리 정류장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일반버스정류장: 일반 403,404,421 승차 → 등2리 하차 → 갈매울 공소까지 걸어가기 (약10분)

갈매울 공소는 신부님께서 부임하시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공소이다. 현재 공소 바로 전 공소는 (현공소를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지붕집이었는데, 강당형식의 목재 기와집이었고, 내부에 방이 있어 신부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머무르셨다.

갈매울이라는 이름은 앞에 바다를 보이는 갈매산이 공소앞자락으로 울타리처럼 이어져 있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외국 사람이 ‘갈매울’이라 부르기 시작해 그 이후 지역명이 ‘서촌’임에도 ‘갈매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공소 이름도 ‘갈매울 공소’로 붙여지게 되었다.

설립자 신부님께서 부임하시어 공소성당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고 당시 전쟁 구호물자들을 활용하여 기금을 모아 공소성당을 짓게 되었다. 당시 공소 앞쪽으로 큰 냇가 흐르고 있어(현재는 밑으로 수로로 되어있음) 교우들이 자갈과 모래들을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고 퍼 날랐으며, 벽돌은 통블럭으로 찍어내어 신부님과 모든 교우들이 함께 공소를 짓고 마침내 1957년 5월 11일 상량식을 거행하였다(현재도 남아있음). 공사 기간 동안 신부님은 자전거로 자주 오셨고 못 오실 때는 복사를 보내시기도 했다. 이후 얼마 전까지도 공소는 신학생들의 피정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설립자 신부님께서 갈매울 공소를 자주 방문하셨고, 판공 시에는 매번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머무셨는데 이때 모든 신자들은 명절처럼 새 옷을 입고 신부님을 맞이하였다. 또 한편으로 판공이 돌아오면 온 동네는 찰고를 준비하기 위해 문답 외우느라고 매우 떠들썩했으며, 문답을 외우지 못하면 손회초리를 맞기도 했다(손으로 때리는 시늉만 하는 사랑의 매). 신부님과 지내는 그 며칠 동안 교우들은 명절처럼 기쁘게 지냈으며 신부님께서 수건으로 뺨을 만들어 주시는 등 교우들을 즐겁게 해주셨다.

당시 동네사람은 모두 신자였고 영성체 수는 전 공소회장님 증언으로 170여명(본당 기록상으로는 270여명)에 달했을 정도로 복음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공소였다. 특히 공소 왼편으로(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얇은 언덕부분) ‘웅기증(웅기공장)’이 있어 타지에서 웅기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라 선교가 더 잘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갈매울 공소에서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많이 배출되었다.

현재 성당 외형은 명동성당을 축소해 놓은 듯한 고딕식 건물(현재 외벽은 페인트칠 상태)이고, 옛 종탑도 그대로 있다. 제대는 바로 전 공소에서 (공의회 이전 벽에 붙여) 사용하던 제대를 그대로 옮겨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고풍스러운 제대이고, 아직도 영성체 난간이 명동성당처럼 제대 앞에 둘러져 있으며, 제대 위에 십자가와 나무 바닥 등은 성당건립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 공소회장 문기연(다두) 형제님과 박영득(마태오) 형제님의 증언)

최근 정보 :

갈매울 공소 내부 수리로 나무 바닥은 타일로 바뀌고 벽 페인트 칠 등 변화가 있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나 제대는 옛 것 그대로 보존 중이다.

현 공소회장, 전임 공소회장 모두 성 신부에게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공소방문 시 마을 어귀로 마중을 나갔던 기억과 공소 신축 당시 모래와 자갈을 날라서 통블럭을 찍어내어 만든 기억, 공소의 변천사를 증언 (옛 기와 일부는 인근의 쌍계사에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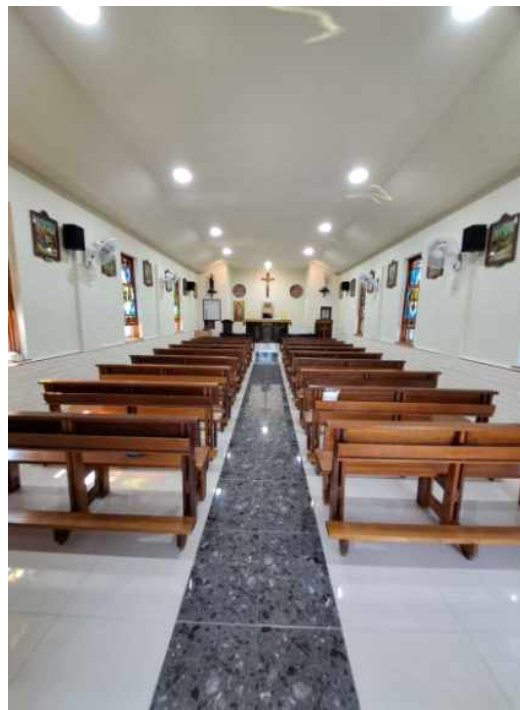
현재 진산에 거주하는 은퇴사제가 매일 아침미사 집전 (약 7명 참례)

공소회장 : 라성임 마지아, 공소 인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어 방문 용이

전 공소회장 : 문기연 다태오, 이 공소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았으며, 요청 시 인터뷰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임



갈매울 공소 외부(수리 후)



공소 내부(수리 후)

연산 공소

부창동 성당 관할 공소

주소 :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75번길 17-4 (옛 주소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2구 58-6번지)

찾아가는 길(논산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301,302,303, 303-2, 304번 -> 청동리 정류장)

39분 도보19분 | 환승없음 | 요금 1,500원 | 12.1km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900347

일번 301, 302, 303, 303-2, 3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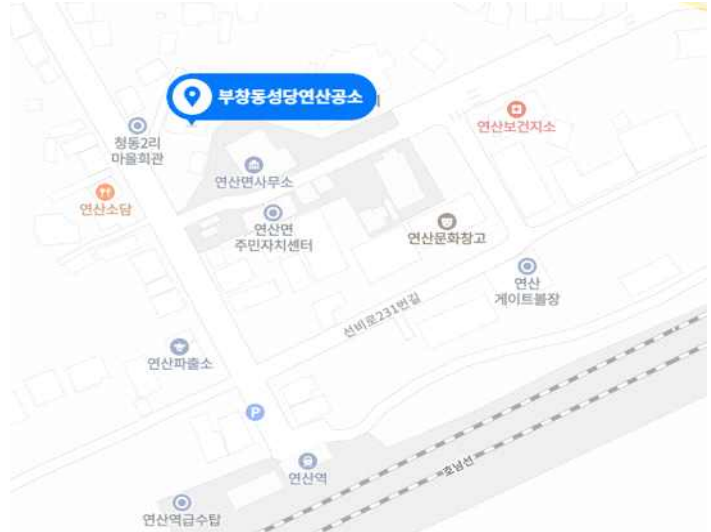
청동리 정류장

38분 도보19분 | 환승없음 | 요금 1,500원 | 12.1km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900347

일번 317-1

청동리 정류장



연산 공소는 부창동 성당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연산역 정문 앞 도로에서 2-3분 직진하면 오른쪽에 청동 2리 마을회관 옆에 있다. 공소 신자는 30명 정도이고 주일 마다 은퇴하신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하신다고 한다. 소병열 데레사 공소 회장님은 연세가 많아 신부님에 관한 자세한 증언을 해 주시지는 못하였지만 사랑이 많으셨던 신부님으로 기억하고 계셨다.

- 애당의 수도원장이 보내준 돈으로 1954년에 연산시장 내 가정집을 매입하여 연산공소를 시작 (부창동본당 100년사, 성재덕 신부 서한)
- 성재덕 신부 사목 당시 활발하게 공소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옹기굽는 이들이 많았으며, 교리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신자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성재덕 신부가 금식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던 이야기에 잘 묘사됨



(공소 외부)



(공소 내부)

* 평일에는 대문이 잠겨있음

은진 공소

주소 :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16번길 10

찾아가는 길(논산 오거리 정류장 201, 202, 203, 204, 25번 버스 -> 교촌2리 정류장 하차)

23분 도보7분 | 환승없음 | 요금 1,500원 | 4.9km

오거리 정류장 2900053

일박 201, 202, 203, 204, 205 ...

교촌2리 정류장

26분 도보13분 | 환승없음 | 요금 1,500원 | 4.9km

오거리 정류장 2900053

일박 104, 201, 202, 203, 204 ...

교촌2리 정류장



오거리 버스정류장 (209,416,211,215-1,212,214, 201,104,215,216,202,203,221,410,204,222,205) 승차 → 교촌 2리 정류장 하차 → 은진공소까지 걷기(약4분)

1952년에 지은 소성당 옆에 1956년에 작은 집을 짓고 있다는 기록이 성재덕 신부 서한에 나타남, 현재 공소 한 채만 남아있음.

1949년 성 신부의 지원으로 강당을 짓기 시작했으나 전쟁 발발로 1954년에야 완공, 현재 공소 아래 왼쪽의 신축건물이 성 신부가 기거하곤 했던 집터 위치임

공소 건물을 상량한 해에 태어난 공소회장의 성 신부에 대한 증언



독서자료

1956.03.15. 논산에서

연산에 집 한 채를 매입해서 (비용의 큰 몫을 애당의 수도원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주일에 교우들이 한 데 모일 수 있고 또 저 자신도 어딘가 갈 곳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진에서는 4년 전에 지은 소성당 곁에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있습니다. 그곳엘 가면 제가 머물 곳이 없었고 또 성당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백석 공소

주소 :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755번길 16-11

찾아가는 길(논산시외버스터미널 301번 버스 -> 백석2리 하차)



1949년에 백석공소가 설립되었으나 공소 부지는 1955년에 확보했다고 성재덕 신부의 기록에 나타남.
 퇴회한 초대 소비녀 이 구두라 (요셉수녀)가 선교활동한 곳
 1955년에 마련한 부지 그대로이나, 공소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소 옆에 사는 어르신은 40년 전 세례를 받아, 성 신부와 구두라 요셉 수녀에 대한 기억이 없음



백석 공소 외부



공소 마당

화마루 공소

주소 : 공주시 구부내로 861

찾아가는 길(논산시외버스터미널 501번 버스 ->화마루사거리 정류장 하차)

51분 | 도보15분 | 환승없음 | 요금 1,500원 | 18.8km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900313
일반 501

화마루사거리 정류장

48분 | 도보11분 | 환승1회 | 요금 1,500원 | 18.5km

취암동 정류장 2900065
일반 801-2, 801, 104, 201, 202

우리정형외과 정류장 2901308
일반 501

화마루사거리 정류장



성재덕 신부의 기록에 따르면 1956년 화마루공소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건물이 56년 당시의 건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음

사제 영입을 간절히 원하는 공소인데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코로나로 중단되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 공소회장이 어린 시절에 만난 성 신부를 기억하고 있으며, 더 어르신들이 증언해줄 수 있으나 대다수 세상을 떠나셔서 인터뷰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1956년에 지은 공소는 현재 공소와 달리, 논산 쪽을 바라보는(성모상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오른쪽) 모양이었다고 함

성 신부 사목 당시 어린이들이 공소 마지막 세대 지킴이가 되었고, 은퇴사제 영입에 대한 간절함이 매우 큼



화마루 공소 외부



화마루 공소 마당 성모상

양촌 공소

주소 :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667-11

찾아가는 길(오거리정류장 416번, 시외버스터미널 402,405번 버스-> 인천리 정류장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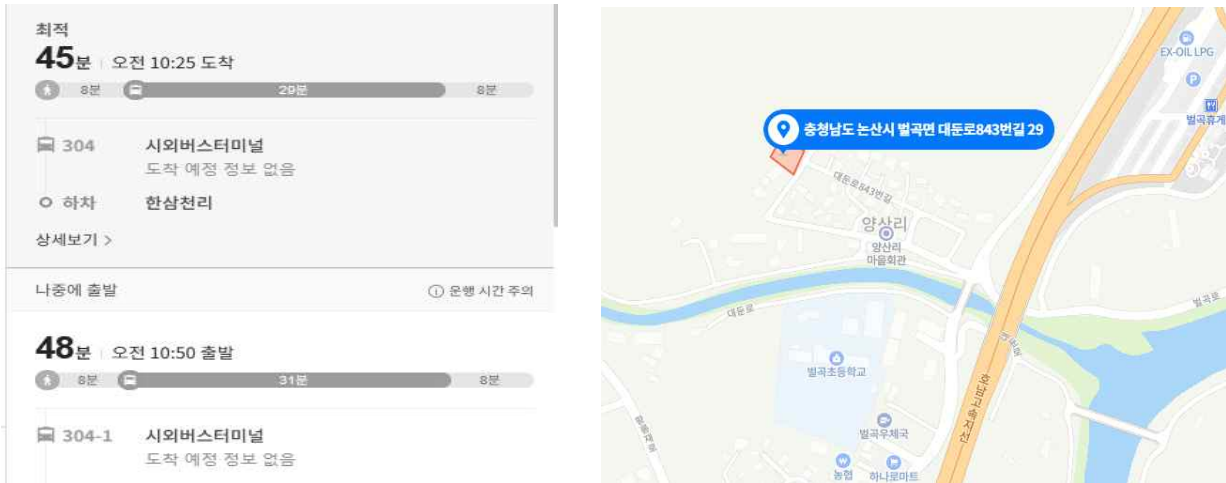


벌곡 공소

주소 : 논산시 대둔로 843번길 29

조선시대 연산현에 속해 일찍부터 교우촌 형성, 6.25 당시 라리보 주교의 피난지를 보관할 만큼 외진 공소, 1956년 강당신축 (당시 교우 150명), 현재 가수원본당 관할 '구역'으로 조정됨

찾아가는 길(논산시외버스터미널출발 304번, 304-1번 버스 -> 한삼천리 하차)



상월 공소

주소 : 논산시 상월면 계룡산로 331-6

1954년 상월공소 완공

구 공소 자리는 사거리 쪽으로 내려와 컨테이너가 위치한 곳이며, 현재 공소는 이전 신축한 것

찾아가는 길(논산 시외버스터미널 505번 버스 -> 석종2리정류장 하차)

51분 도보15분 | 환승없음 | 요금 1,500원 | 18.4km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900313
일번 505
석종2리 정류장

47분 도보11분 | 환승1회 | 요금 1,500원 | 18.2km

취암동 정류장 2900065
일번 801-2, 801, 104, 201, 202 ...
우리정형외과 정류장 2901308
일번 505
석종2리 정류장



되재 본당터

주소 :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승치로477

옛 교우촌, 공소/ 논산 강경 일대 모든 본당의 모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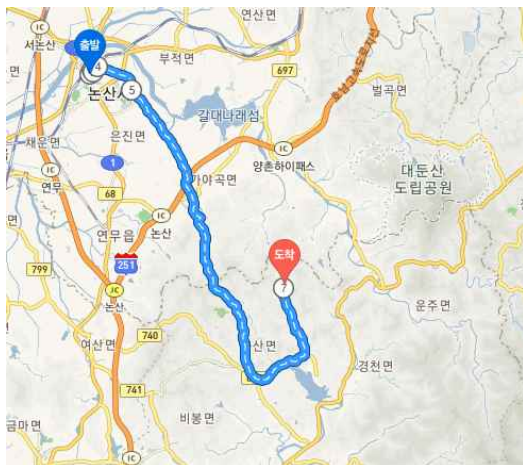
1895년 한강 이남 최초의 성당, 최초의 한옥성당

최근 정보 :

쇳락한 공소를 사적지로 복원해 놓았으며, 신앙을 이어가는 설립자 사목지와 대조적인 모습, 백석공소로 이어지는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으나, 논산 관할의 백석공소가 아님

(오히려 공소의 신앙이 잘 이어지고 있어 귀촌 마을공동체, 성경에 나오는 식물로 마을길 조성 등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활발한 공동체로, 방문이나 연계도 좋을 것으로 보임)

찾아가는 길(논산부창동성당에서 자동차로 찾아가는 길만 있음)



공소 사목 관련 독서 자료

서한 1949.11.21.~12.31,논산에서

요즘에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우선 11월2일부터 본당 구역 안에 있는 공소들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성당으로 돌아왔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가야 합니다. 11개의 마을을 방문해야 하는데 하루만 머무는 마을도 있고, 2-3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신자들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돌 바닥에 누워서 자고 신자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으니 좀 피곤하긴 하지요. 그런데다, 심하지는 않지만 영 멈추지 않는 설사병에 걸렸지요. 그래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방문한 공소는 **은진 읍내에 있는 공소**입니다. 읍내라고 하는데, 외관으로 볼 때에는 본국의 가장 작은 마을만 못하면서도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미사를 3번 지냈고 모든 교우들에게 고백성사를 주었으며, 그들 모두에게 교리 찰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두 명의 냉담자가 고집을 부리고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우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공소집 주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작은 성당과 신부를 위한 방을 따로 지어 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도 역시 내 나름대로의 경제적 부담을 해야만 하겠어요. 그곳 대부분의 교우들은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더군요.

주일을 보러 성당에 돌아왔다가, 주일 다음 날인 12월3일¹⁾에는 다섯 군데의 다른 공소를 순회하기 위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월요일 날 **상마루 공소**로 갔는데 25명에게 고백성사를 주고 교리 찰고를 했습니다. 웅기 공장이 있는 마을이라 발전의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웅기장인들이 너무도 이사를 잘 다니기 때문이며, 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기도 하고 말다툼을 자주 하기도 해서 표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를 아주 잘 알아요.

화요일 날 **하마루 공소**로 갔는데, 그곳 주민들 역시 웅기장인들이며 그 중에는 품행이 좋지 않은 몇몇 집들이 있습니다. 제대 밑에 설치된 두 사람이 들어 누울 수조차 없을 만큼 좁은 골방 비슷한 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수요일 **돌분리(돌분이) 공소**로 갔어요.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 곳 사람들은 전에 다녀 본 두 마을 사람들보다 낫지요. 교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기슭에 자리한 이 동네는 먼 옛날부터 신자들이 있던 동네이지만 신자 수는 많지 않아요. 고백성사 대상자는 30명에 불과합니다. 재산이 약간 모이기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이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요일 날, **연산 읍내**로 갔습니다. 이곳에도 웅기 공장이 있는 동네에 공소가 있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서 화가 좀 났지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는 금식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며칠 동안 계석해서 쌀밥만 먹다보니 그것에 싫증이 나기도 했기 때문에 금식이란 일종의 휴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저녁에 가서 공소 회장이 용서를 청하면서 다음 번 공소 방문까지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양산 공소**를 향해 갔습니다. 산 속 깊이 파묻혀 있고, 고백 대상자가 15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마음에 드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구불구불한 길로 오랫동안 올라갔다 내려가야 합니다. 좀 서둘러서 고백성사를 다 주고 교리 찰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가장 높은 산

1) 11월7일(본문에서 11월24일이 목요일이므로).

마루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장관이었는데 저 멀리에 논산도 보였지요.

토요일 날 본당에 돌아왔고 주일날은 점심 식사 후에 **갈매울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이곳은 4일 동안 머물러야 할 만큼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120명의 고백 대상자가 있으며, 옹기장이들이 많이 사는 큰 동네입니다. 경당이라고 하는 작은 성당이 있을 만큼 열심한 신자들이 사는 공소입니다. 경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기 2-3킬로미터 지점에 나온 아이들도 있어서, 그 동네에 들어갈 때에는 내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공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인생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교리 공부도 잘 합니다. 내년 봄이 되면 교리 문답을 완전히 암송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장엄한 영성체식”에 참가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모든 신자들이 강당, 제대 앞의 바닥에 둘러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질문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부모들도 그곳에 함께 하여 무척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가족적 분위기 속에 한 두 시간을 보낸 다음 모두 공식 기도문에 따라서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고향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긴 기도를 모두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산 중에 있는 **쇠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소를 향해 갑니다. 이 곳 신자들은 대부분 좀 무식하면서도 순진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외교인들의 입교와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5명에게 고백성사를 주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5-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옛날 성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옛 성당으로 가려면 꽤 가파른 고개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고개는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그리고 대전교구와 전주교구 사이의 경계선이 되는 곳입니다. 그 옛날 성당은 “**되재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 여러 본당의 “모본당”(어머니 본당)인 것입니다. 바로 옆인 강경 본당에 계시는 “베르몽”노신부님은 옛날에 8년 동안이나 되재 본당에 계셨지요. 그러다가 그 곳에도 박해가 일어나면 고개 넘어 단 시간 내에 다른 행정 구역으로 다시 피난 갈 수 있는 잇점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 당시엔 교우들이 많아서 선교사들은 되재 같은 곳에 정착했었지만, 현재에는 되재에는 교우가 거의 없고, 성당은 무너질 지경이며 신부는 신자들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더 이상 오지 않는 본당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두 분의 할머니를 방문하여 고백성사를 주었고, 이튿날에는 다시 성체성사와 종부성사를 주기 위해서 그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건강이 악화될 때에는 본당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곳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말복**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농사를 짓는 구 교우들인데, 이들도 역시 외교인들에 대한 전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집의 주인이 좀 아파서, 식사도 변변치 못한 편이에요. 토요일 오전에는 날씨가 몹시 추웠지만, 자전거를 2시간 동안 타고 본당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월요일인 11월23일²⁾에는 **태틀 마을**로 나갔습니다. 역시 농사를 짓는 구교우 마을인데 전교에 약간의 열성이 있어서 몇 명의 예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50명의 고백성사 대상자가 있는 공소입니다. 화요일 아침 첫 새벽에 은진으로 장례미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신자인 면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망인의 집에서 미사를 지내고 나서 태틀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마지막 공소인 **태밀 공소**로 출발했습니다. 재미가 없는 공소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25명의 가난한 신자들은 5개의 마을에 분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을 살지

2) 11월21일이 문맥상 타당.

못합니다. 비신자들 가운데서 외롭게 살면서 일 년에 단 2번 밖에 사제를 만나 보지 못하는 이 가련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 가운데 좀 생각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느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요.

11월24일, 본당에 돌아오자 즉시 학교 일에 정신을 쏟아야 했습니다. 봉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교사들이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라리보”주교님과 상의하러 대전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교사들의 요구 사항에 타당성이 있어서 결국 그들의 월급은 4,000원씩 올리기로 했지만, 이것은 1년에 96만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월8일에 주교님이 논산으로 오실 예정이었으므로 지금 견진식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소를 제외한 논산 시내에만도 200명 이상의 견진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10명이 고리 찰고를 받았는데, 아직 5일 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대부분의 희망자들은 날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서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견진이 끝나면 성탄 축일 준비를 해야 하겠으니, 살맛이 납니다.

요사이엔 정확히 말하면 어제이었지만 회장들은(회장이란 신자들의 대표라고 할까, 신자들중에서 유지라고 할까, 하여튼 6명입니다) 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제관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안건이란 금전 문제였으므로 그들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나는 성사 집전과 강론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교회 재정을 맡으려는 이 회장단은 첫 째로 주교님께 미사 예물을 비치기 위해서 각 견진자에게 100원씩 내라고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둘째로는 각 신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번 성탄 안으로 500원 내지 1만원의 교무금을 내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금방 태어난 아기처럼 마음이 맑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회장단의 이 결정을 그대로 방다 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당 신부는 조금도 애쓰지 않아도, 그야말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교무금이 잘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고향 에델의 주임 신부님께 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은 샘을 내시겠지요. 하여튼 이곳에서 통용되는 원칙은 교회는 신부의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의 교회이며 신자들이 교회 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이며, 신부는 감독하고 격려하며 지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신부는 지도하고 있는 신자들을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서한. 1950.03.06. 에델에서 어머니로부터

이 날을 꼭 기억하거라! 이 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시련을 보내셨구나...

이 편지는 한 사제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아빠를 어느 날인가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제인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어제, 3월 5일 낮 12시 15분경에 너는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 아빠는 공소에서 분주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너의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칭송 받을 만한 공소 순방이 아빠에게 고통을 거의 겪지 않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죽음, 안락한 죽음을 선사했구나.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떠나셔야 했나보다!...

서한. 1951.12.10. 에델에서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네가 많은 위안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소에서 돌아왔으리라 짐작한다. 나는 생각로나마 매일 매일 너의 행로를 함께 했다. 이 편지가 너의 성탄일을 조금이나마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너의 계획을 잘 아는지라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

서한. 1953.01.28. 논산에서

저는 벌써 봄 공소를 치르러 떠날 채비를 합니다. 저는 재의 수요일에 떠나서 3월 19일까지 쉬지 않고 순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 후 첫 주일에 봐야 할 교우촌은 한 군데만 남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소를 한 바퀴 둘러보려면 자전거로 약 450km를 달려야 할 겁니다.

어떤 불쌍한 젊은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외교인인 그녀는 나이가 대략 25살 정도 됐는데 남편은 공산당들 손에 죽고 부모도 죽고 남동생, 여동생 다섯을 길러야 하는데 막내 동생은 아직도 아주 어린답니다... 참으로 딱하지요!